



캐터필라 D-시리즈 굴삭기!

연료절감모드로 고유가에 대처하세요!

[스탠다드 모드 선택시]

- 연료절감모드
- 중/경부하 작업시 사용되는 모드
- 1,800 이하의 RPM 형성
- 1,800 RPM에서도 100% 토크 생성

[파워 모드 선택시]

- 최대의 작업속도 및 생산량이 요구될 때 적용
- 고부하 작업시 사용되는 모드
- 1,900 이상의 RPM 형성

★★★★★
연료 I 절감!

연료절감모드 로 변경하세요!



※ 해당 모델 : 325D 시리즈 굴삭기,
330D 시리즈 굴삭기 (모델별로 모드 변경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연료 II 절감!

작업 부하에 따라 올바른 모드 및
스로틀단수를 선택하세요!

스로틀 단 수	RPM	작업 조건	비고	연료소모량 비교
10 단	1,980	고부하 작업	파워모드	10 단 3~4 t/h 차이
9 단	1,900	중고부하 작업	파워모드	
8 단	1,800	중부하 작업	스탠다드모드 (10 단)	
7 단	1,700	저부하 작업 · 해머 작업 · 미세 작업 등		7 단 각 1~2 t/h 차이
6 단	1,590			
1~5 단	950 ~ 1,470	필요시 작업 조건에 따른 적절한 사용		

★★★★★
연료 III 절감!

엔진 속도 조절 버튼을
사용하세요!

장시간 무부하시
'엔진 속도 조절 버튼'
을 사용하면 더욱 더 절감!
(1,020 rpm 까지 하강
자동의 경우 1300 rpm으로 하강)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헤인

2008, Summer vol.259

www.haein.com

고객을 위한
가치추구

신뢰의 헤인이
한국 건설기계시장의 새 변화를 예고합니다!



당신에게 하고싶은 말, 고맙습니다

가장 흔한 말,
하지만 진심을 담아 건네기는 쉽지않은 말,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왠지 어색하고 민망하기만 하다.

영화 속 대사 중 가장 흔한 말인 “Thanks” 처럼
우리도 감사의 말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을테니까.

자, 아직도 이 말이 어색하다면
작게, 나에게만 들리게 3번 말해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Thank you



cover story...

신뢰의 헤인이 한국 건설기계시장의 새 변화를 예고합니다



Special Zone 02 프롤로그 04 Theme_소금처럼 귀중한 말, '고맙습니다'

Harmony Zone 06 헤인이 간다1_ 헤인의 수준 높은 서비스에 최고라 말하는 송원개발㈜ 09 헤인이 간다2_ (주)헤인 & 유니산업개발(주) 신뢰와 웃음이 같이 가는 비슷한 사람들 12 헤인주치의_ 내 몸에 맞는 비타민, 어떻게 고를까 14 Success story_ 회사 운영에도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17 New Face_ 테렉스 페그슨 모바일크라샤 & 파워스크린 모바일스크린 18 헤인 다이어리_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프로젝트를 찾아 세계로! 21 이 제품에 주목한다_ 소형불도우저의 새로운 정의 D3K/D4K/D5K/D6K 22 Technology data_ 오일의 혼용성 24 Trend Focus_ 미래를 내다보는 고유가 정책 필요 26 Best of Best_ 캐터필라 휠 굴삭기 M313D

Fever Zone 28 Counseling for you_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30 헤인들여다보기(NEWS)



07



10



14



17



19

소금처럼 귀중한 말,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얼마나 될까? 그리곤 아무리 반복해도 기분 좋은 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인 "고맙습니다", 이 단어에 나의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본다.

글\강타빈 칼럼리스트



*자꾸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해외여행을 간다면 현지어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아무리 언어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안녕하세요"와 "고맙습니다"는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예전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런던에서 어떤 영국 신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한 적이 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치즈~"를 외치던 사람. "고맙습니다!"를 외친 후 카메라를 돌려받는데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따라한 적이 있다. 그것도 꽤나 정확한 발음으로, 반가운 소리에 우리는 한국 말은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그는 영국에 놀러온 한국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Thank you'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다 했다. 평소엔 큰 신경 쓰지 않고 들던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외국에서 외국인의 입으로 들었을 때 받았던 신선한 기분이 아직도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할까?

열 번, 다섯 번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만한 일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쳐서 안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니면 혹시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공기처럼, 소금처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너무 흔히 있어 버리고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지 고민해보자.

*진심이 담긴 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뱉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길 바란다. 만약 자신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진심 어린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진심 어린 표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심이 담긴 표현인지 아닌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사실 사무실에서 팩스를 대신 전달해 주지 않아도 '급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두 바쁘는데 잘못 걸린 전화를 일부러 돌려줄 필요도 없다.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고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선물처럼 물질적 보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면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자. 내 앞자리에 앉은 동료의 작은 친절에, 뒷사람을 위해 열린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건네보자. "감사합니다!"

헤인의 수준 높은 서비스에 최고라 말하는 송원개발(주)

주변을 한 번 돌아보자. 우리가 사는 집, 근무하는 건물, 걸어 다니는 길.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빠를 듯 싶다. 원목에만 없고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들어가는 이 광석은 대체 무엇일까? 덩동덩! 바로 석회석이다. 건축 재료로, 화장품으로, 시멘트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석회석이 많이 채굴되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송원개발(주)를 찾았다.



1. (좌로부터) 헤인 재천사무소 박우양 소장, 이광훈 주임, 송원개발 임직원들
2. 능률한 자태의 966G II 휠로더와 325DL 굴삭기
3. 서비스에 만전을 다하는 이광훈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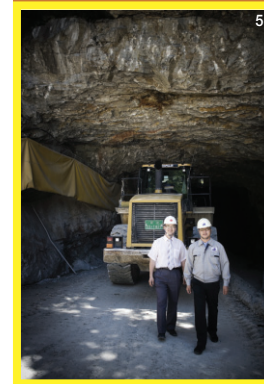
상시 15℃ 인 송원개발(주)

초여름임을 온 몸으로 보여주듯이 뺨뺨 내리쬐는 햇살 아래 지쳐간다. 송원개발(주)를 찾아가기 위해 에어컨을 켜 자동차를 달려 푸른 숲이 휘감고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광산에 도착해서 자동차의 문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자동차의 에어컨보다 시원한 자연의 바람이 분다.

조금 있으니 시원하다 못해 답살이 돈다. 아! 좋다. 이것이 바로 천연 에어컨? 시원한 바람의 출처가 바로 송원개발(주)가 석회석을 캐는 갱이다. 어두컴컴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석회석이 있다. 잠시 갱 입구 앞에서 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환한 미소를 가



4. 송원개발 조관현 상무와 헤인 서비스 담당 이광훈 주임
5. 15℃의 온도에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두사람
6. 966G II 휠로더의 모습



진 꽃미남(?)이 웃으며 다가온다. 송원개발(주)의 조관현 상무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계속 계시면 출습니다. 상시 15℃를 유지하거든요. 감기 들기 전에 어서 들어오세요.”
2005년에 헤인을 만나 지금까지 325DL 굴삭기 외에 966G II 2대, 966H 휠로더 1대 등 총 4대의 장비를 구입한 송원개발(주). 국내 석회석 광업체 중에서 최상의 석회석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송원개발(주)은 2008년 7월 헤인으로부터 한 대의 장비를 더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예전엔 헤인에서 취급하는 캐터필라 장비는 막연히 ‘대형장비’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터필라의 다양한 장비를 접해보고 나니 슬림하고 잔 고장 없는, 익히 들은 명성 그대로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구입한 게 벌써 5대째네요. 예전에 비해 낱싹해져서 혹시 내구성 약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사용하면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헤인의 Best는 바로 서비스

각 중장비업체마다 특별한 무언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



7. 맞잡은 손은 서로의 신뢰를 말한다.

8. 갱내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966G II 휠로더



그렇다면 헤인의 특별한 ‘어떤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조관현 상무는 ‘서비스’라 말한다. 캐터필라 장비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차별화 된 헤인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라고.

“다들 특별한 영업 포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서비스죠. 헤인의 이광훈 주임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요구할만한 것은 없지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보다 빠른 서비스’입니다.

송원개발(주)은 석회석 광업체로 지하 갱내에서 작업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하죠. 그럴 때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화약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장비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또한 갱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점심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헤인의 서비스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비도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시간에 맞춰서 실시하

는 항상 고객을 배려하는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인의 서비스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잠깐! 서비스 이야기만 하느라 장병학 지사장님과 박우양 소장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빼뜨렸네요. 두 분도 항상 배려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관현 상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바로 정선 사무소의 김명배 기사다. 고객들의 요구에 100%는 못되어도 99% 만족할만한 답을 내어놓는 사람, 주변에서 최고의 서비스기사라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있기에 송원개발(주)은 항상 든든하다고 말한다.

짧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조관현 상무가 붙잡는다. 여기까지 왔는데 갱을 둘러보라는 것. 차에 올라 갱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부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적은 부분을 개발하여 자연을 그대로 살린 모습이 보였다. 지하에 펼쳐진 석회석 갱. 이 안에서 캐터필라와 송원개발(주)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원석을 운반해온 769C 트럭이 크러셔에 덤프하는 모습

(주)헤인 & 유니산업개발(주)

신뢰와 웃음이 같이 가는 비슷한 사람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석산 중 하나인 유니산업개발(주). 이곳에 헤인마니아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마니아 수준을 넘어서 헤인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이 사람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서로에 대한 자량이 멈추질 않는 걸까? 중장비의 커다란 소리만큼 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아닌 큰 웃음이 넘치는 사연, 꼭 들어보아야겠다.



1. 유니산업개발의 이윤희 사장과 헤인의 김홍수 과장 2. 현장에서 장비 정비를 총괄하고 있는 유니산업개발의 여운정 대리 CAT정비와 헤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3. 헤인의 백성락 팀장과 유니산업개발의 박종완 부장



여기가 대체 헤인이야? 유니산업개발이야?

비가 오락가락 하던 6월말. 우산을 한 손에 든 채 퇴근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백성락 팀장의 '유니산업개발'에 대한 자랑을 듣다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니산업개발이 웬지 친근하게 다가왔다.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보이는 큰 석산현장.

지금까지 여러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다. 감탄을 연발하다 차에서 내리니 다가오는 한 사람. 유니산업개발의 박종완 부장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웃음 뽀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니 어느새 백성락 팀장과 김홍수 과장과 티격태격이다. 서로 기분 좋은 농담을 주고받는 세 사람. 오늘 인터뷰, 시작이 좋다.

"아니, 여기는 왜 또 왔어?" "보고 싶으니 왔죠~ 아니 그런데 왜 일안하고 나와 있어?"

장난 섞인 농담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더니 백성락 팀장과 김홍수 과장은 유니산업개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같은 회사 동료인 직원들에게 양 장난을 건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직원들. 이거 대체 여기가 헤인이야? 유니산업개발이야?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동안 이윤희 사장이 나온다. 나오자마자 백성락 팀장에게 또 한 소리. 어랏, 사람들의 패턴이 똑같다.

유니산업개발에 가서 직원이라 장난치는 사람들

헤인과 유니산업개발이 만난 지는 어느덧 10여 년,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석산의 개발양이 커지면서 '강한 힘과 효율성을 겸비한 가진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캐터필라 장비를 만났다. 캐터필라 트럭 769C 3대를 비롯하여, 345CL, 330CL, 345BL 굴삭기, 980H, 980F II 휠로더 등 유니산업개발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라 장비만 총 10대가 넘을 정도.

"너무 오래 만났나봐요. 이러다보니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에서 헤인 직원을 만나게 되네요. 이거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벌써 알고 인사를 해오니 이거 참... 그리고 얼마나 웃긴 상황이나면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장난을 자주 쳐요. 자기가 우리 직원인양.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니 '그런가보다' 하죠. 그걸 다 알고 보는 우리는 아주 황당하니까요. 헤인 사람들의 친화력은 알아줘야해요."

바로 이 것이다. 여기가 유니산업개발인지 헤인인지 구분 안가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은 바로 '친밀'이었다. 오랜 시간 만나면서 쌓인 신뢰, 그리고 그 동안 쌓인 정.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에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이해가 된다.

신뢰가 신뢰를 낳는 관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니니까 가능한 겁니다.'라고요. 뭐, 물론 다른 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 이걸 바로 '신뢰'라고 봅니다. 헤인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어요. 현장에 있다보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데 부품 때문에 서비스가 늦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매우 빨라져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서로 신뢰가 쌓이다보니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는 게 아닐까 합니다."

유니산업개발의 박종완 부장이 말을 끝내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이윤희 사장이 한마디 거든다.

"근데, 비싸. 장비는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캐터필라만한 장비가 어디 있었어요. 구입한 후 사용할 때마다 만족스럽고 나날이 A/S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단 말이지. 그거 알아요? 구입을 고려할 때 높은 단가 때문에 망설이곤 하는 데 그럴 때 항상 결론은 하나예요. 비싸도 그 값을 하는 장비다, 이러니 구입하는 거죠. 그래도 비싸단 말이야(웃음)."

인터뷰를 마친 후 석산으로 올라갔다.

여기저기를 누비며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박부장은 직접 석산 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 감탄사를 연발로 외치며는 우리 앞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펼쳐졌다.

현장 곳곳에 놓인 다양한 캐터필라 장비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열심히 움직이던 장비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모였다.

그 앞에는 각 장비의 운전기사들이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저 미소가 바로 헤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내 몸에 맞는 비타민, 어떻게 고를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약국에 가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비타민이 있어 고민만 하기 일쑤. 우리에게 맞는 비타민은 어떤 것일까? 올 여름, 나는 올바른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경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미 경유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 접어들어 건설기계사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01 종합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A·B(B군 중 1종 이상), C·D·E' 다섯 가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종합'이란 표현 대신 '복합', '혼합', 'multi' 'complex' 표기만 할 수 있다. 시판 중인 대표적 종합 비타민제는 더글라스사의 '멀티비타민 화이트'(50가지 성분), 비타민 하우스의 '초이스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30가지 성분), 와이어스사의 '센트룸'(27가지 성분) 등이 있다. 57가지 영양성분과 다른 미량 영양소도 들어 있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거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 결핍되기 쉬운 '일일 최소요구량'을 채워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조건 한 알 안에 많은 성분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알 안에 든 영양소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각각의 영양소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 영양제를 살 때에는 영양소의 가짓수와 함께 각 영양소의 함량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비타민C는 흡연으로 인한 몸 속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02 종합 영양제 & 단일 영양제

건강을 위해 특정 성분을 좀 더 섭취하고 싶다면 2~3가지 성분이 강화된 '복합 영양제'나 1가지 성분만 고용량으로 들어 있는 '단일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복합 또는 단일 영양제 속 특정 성분의 함량은 종합 영양제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10~20배 가량 많다. 일일 상한 섭취량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섭취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03 음주와 흡연 많이 하는 남성



비타민B군과 C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이 좋다. 비타민B군은 술의 해독을 도와주고 간의 염증을 완화시킨다. 비타민B1·B2·B12 등은 과다 복용 시에도 비교적 안전하므로 상한섭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비타민B3와 B6은 하루 100m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C는 흡연으로 인한 몸 속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 유한양행 '베리썬' 등이 대표적이다. 비타민C 고 함량 제품에는 고려온단의 '비타민C 1000mg', 천호식품의 매일매일 비타민C(3600mg/하루) 등이 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일일 최소
요구량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04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노령층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요구량은 줄어들지만 단백질 요구량은 그대로다.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든 클로렐라 등의 단일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 소화력이 크게 떨어져 영양성분이 들어와도 잘 흡수가 안 되므로 소화기능을 높여주고 영양분의 장내 흡수를 높여주는 유산균 단일 제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B12 단일 제제도 좋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비타민B12 결핍률은 약 40%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적혈구의 수가 줄어들어 영양 흡수율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커진다.

단백질이 많이 든 단일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힘 좋은 캐터필라, 회사 운영에도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석산/골재 채취 산업에서는 설비투자자과 장비 운용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 마련.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정읍시의 (유한)상두산업은 헤인과 캐터필라 그리고 헤인만의 특별한 금융서비스,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CFSK)의 혜택을 톡톡히 본 사례로 손꼽힌다. CFSK 최승호 부장과 중부호남지사의 이승일 과장과 함께 상두산업을 찾은 날은 장마철임에도 이들을 맞는 권지는 대표이사의 밝은 미소만큼 활짝 개어 있었다.



1. 캐터필라 980G II 휠로더가 막강파워를 발휘하는 현장!
2. 상두산업과 CFSK 최승호 부장, 헤인 이승일 과장
3. 캐터필라 980G II 휠로더
4. 캐터필라 최고예요!

좋은 성능에 알아서 해주는 신속 A/S

석산/골재 채취업을 하는 (유한)상두산업은 가족기업으로 권순태 회장의 딸인 권지는 대표이사와 아들인 권진규 관리부장이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35억 원의 내실 있는 기업이다. 1998년 경기도 연천 사업장을 시작으로 작년부터는 전북 정읍시 용동면 석산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4년 캐터필라 휠로더 980G II를 구입하며 헤인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상두산업은 '써보니 역시 좋더라'라며 캐터필라 장비와 헤인을 칭찬한다. "장비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연락만 하면 즉각 처리해주니 현장을 관리하는 처지에서 이보다 좋을 순 없죠." 권진규 관리부장의 칭찬에 권지는 대표이사가 한마디 거든다.



"다른 업체들은 A/S 신청해도 '갈게요' 하면서 2~3일을 끄는데 헤인은 달라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해주고 다른 장비도 함께 봐주니 헤인을 잘 선택했다 싶죠. '불편한 것 없느냐'며 수시로 찾아오는 이승일 과장님도 그렇고요." 헤인과 거래하면 당연한 일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이승일 과장은 권 부장의 한마디 말에 폭소를 터뜨린다. "작년에 캐터필라 굴삭기 330DL을 구입할 땐 매일 같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계약서 쓰고 나니까 뜸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고, (웃음)"

헤인의 특별한 맞춤 금융서비스

이들이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 것은 단순한 장비판매 회사와 구매자만의 관계를

넘어서 CFSK를 통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330DL 굴삭기 구입시 때마침 맞물린 샌드밀과 크라샤 등의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로 자금운영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상두산업은 통상 30%에 이르는 장비 계약 선수금을 거의 치르지 않고, 게다가 타업체와 비교되지 않는 저이율로 330DL 굴삭기를 인수할 수 있었다. 이전에 거래하며 쌓았던 신뢰와 다른 국내업체 장비보다 훨씬 높은 980G II 휠로더의 중고가치를 감안한 혜택이었다.

특히 장비구입시 CFSK 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샌드밀과 크라샤를 매개로 금융리스(세일앤리스백 방식)를 진행하여 CFSK로부터 운전자금을 조달 할 수 있었던 것은 딱딱했던 회사운영에 윤활유와 같았다고 한다. 권지는 대표이사는 장비 구입시 받은 혜택뿐만 아니라



5. 삼두산업의 권지는 대표이사과 권진규 관리부장과 함께 회의중
6,7. CFSK 최승호 부장과 삼두산업의 권지는 대표이사의 특별한 파트너십

업계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헤인의 캐터필라 파이낸셜 운전 자금 대출이 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압박하고 할부이자 임금을 며칠 놓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말라며 원래 이자만 넣으라고 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칼같이 이자를 계산해내며 청구하는 일반 캐피탈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지요.” 옛된 외모와는 달리 쿨뒤편하기 어렵다는 화약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기도 한 목소리 나는 경영자로 권 대표이사를 소개한 최승호 부장.

장비를 팔면서 판매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금융서비스이며, 장비 고객이 곧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속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보다 고객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권지는 대표이사의 말이 이어진다.

행복한 삼각관계-상두산업과 헤인 그리고 CFSK

“알고보면 헤인의 캐터필라 장비도 그리 비싸다고 볼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몇 년만 지나면 장비의 감가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다른 국내업체 제품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융 상환표를 갖다놓고 총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다른 업체 장비 살 때보다 30~40%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이지 좋은 제품 싸게 사서 편하게 쓰는 셈이지요.”

권 부장의 ‘요즘엔 헤인의 캐터필라 장비를 써야 폼나는 것 같다’라는 우스갯소리에 환하게 웃는 권지는 대표이사와 이승일 과장 그리고 최승호 부장.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삼각관계가 오래도록 지속하기를 기원해 본다.

캐터필라 파이낸셜 서비스주에서는 Caterpillar 신장비, 중고장비에 대한 금융뿐만 아니라 Caterpillar 고객의 설비투자(크러셔, 샌드밀 등 건설기계, 경쟁장비 제외)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기존 장비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상담: CFSK 최승호 부장 ☎(02)3484-0412 H,P 011-9754-4621

테렉스 페그슨 모바일크래셔 & 파워스크린 모바일스크린

TEREX Pegson Mobile Crusher & Powerscreen Mobile Screen

2008년 (주)헤인에서 아심차게 선보일

세계 최고의 모바일 크래셔/스크린!

“국내 경제 산업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장비의 수요에 발맞춘 최고의 성능을 가진 테렉스 페그슨의 모바일 크래셔와 파워스크린의 모바일 스크린!”

테렉스 페그슨(PEGSON)은 영국 남부에 위치한 17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모바일크래셔(이동식 파쇄기) 전문 제조업체로 건설현장, 광산, 석산 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테렉스 파워스크린(POWERSCREEN)은 아일랜드에 위치하였으며 1966년 설립된 이래로 모바일스크린(이동식선별기)분야에서 세계 1위의 제조회사로 스크린분야에 세계최초로 모바일

(이동식)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광산, 석산, 재활용, 골재처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주)헤인 장비사업본부에서는 금년 10월 모바일크래셔(조크래셔)XA 400, 모바일스크린 Warrior 1800의 시연회를 개최하여 최고의 성능을 지닌 테렉스 장비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징

1. 세계 최대 트랙형 크래셔 및 스크린 제조업체

2. 전 세계에 걸친 신속 정확한 제품 사후관리

3.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디자인

4. 타사에 비해 뛰어난 출력

5. 낮은 연비



페그슨(PEGSON) _
모바일 크래셔(조크래셔) XA 400 (Jaw Crusher)

Size : 1100 X 650 mm	제품크기	생산량(톤/시간)
Feeder : 1,06 X 4,08 m	50mm	160 ton
Hopper Length : 4,9 m	75mm	230 ton
Hopper Width : 2,41 m	125mm	350 ton
Capacity : Max, 10 m³		
Powerpack : Cat, C-9 Tier 3; 172 Kw at 1600 rpm at sea level		



파워스크린(POWERSCREEN)
모바일 스크린 Warrior 1800

선별사이즈 : 2
중량 : 30 ton
최대생산량(톤/시간) : 500 ton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프로젝트를 찾아 세계로!

쿠웨이트 현지에서 50도를 육박하는 더위와 모래 바람에 맞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주)해인 파워시스템 사업본부 박윤수 부장과의 일문일답.

본 현장에 투입되기까지의 과정과 에피소드 그리고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2006년 3월, (주)해인은 SK건설(주)에 창립 이래 단일 계약 규모로는 가장 큰 153억원에 캐터필라 발전기 8 세트 및 그 부속 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발전기 세트 및 부속 설비는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의 8군데 크루드 오일 집하장에 설치되는 필수 발전 설비로서 현재 8대 전량이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제 1번기가 곧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이 발전기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당사 천안 공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조립 및 쿠웨이트 오너 입회 하에 시운전을 마치고 2007년 12월부터 설치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설치 공사 진행 중이다.

해인에서 SK건설(주) 측으로 공급한 엔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엔진 및 발전기를 운전하기 위한 보조설비들을 모두 국내에서 해인 이름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현장 발전실내에 반입되는 발전기 세트

1) 엔진

- Caterpillar 3608 x 3 대(2000 kW, 3300 Volt, 50Hz, 1000 rpm)
- Caterpillar 3608 x 1 대(2400 kW, 3300 Volt, 50Hz, 1000 rpm)
- Caterpillar 3612 x 2 대(2800 kW, 3300 Volt, 50Hz, 1000 rpm)
- Caterpillar 3616 x 2 대(4000 kW, 3300 Volt, 50Hz, 1000 rpm)

2) 발전기 운전을 위한 보조 설비

- Generator Control panel
- Load Bank Switch/Control Panel
- Load Bank (40% of Generator rated capacity)
- Load Bank Transformer (2000-1000 KVA)
- Load Bank 3,3 kV Switchgear
- Air Compressor x 2 set with operating panel per Unit
- Remote Radiator set
- Battery Charger Drop Within 1%)



현장 발전실 콘트롤 룸에서 엔진서버 시스템 정원혁 과장
과 SK Global 직원과 함께

Ni-Cad Battery set (24시간 full 방전가능)

Sound Attenuated Enclosure (Spec. 85 dBA@1meter /

실측 82 dBA@1meter)

Air Receiver Tank (2,5 m3)

Fuel Storage Tank (22,900 Liters, -24 hrs operation)

Explosion proof Instrumentation

현장에서 함께 애쓰는 동료이면서 고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장 발전실 콘트롤 룸

SK건설(주) 전기설계팀 정순화 부장은 2005년부터 시작한 SK건설(주) 쿠웨이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핸들링 해온 전기 엔지니어로서 그간 발전 설비에 대한 모든 설계를 주도해왔다. 현재는 쿠웨이트에 상주하면서 발전 설비공사 관련 업무를 리드하는 리드 엔지니어로서 해인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SK건설(주) 현지 시공팀과 해인 사이의 업무 조정 역할을 해오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점과 고객(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전략은?



다음 공정에 대한 논의 중

프로젝트 영업은 단품 세일과 달라 뚜렷하게 차별화된 영업이나 서비스 전략이라기 보다 고객이 요구하는 엔지니어링과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아직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한 인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결심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간 해인 파워시스템사업본부 내부에서 보여준 SK건설(주) 프로젝트 수행의지는 SK건설(주)를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

았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소규모 지원 인력으로 설계부터 공장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고 현장 시운전만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려온 것은 SK건설(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인 직원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해인 가족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곧 진행될 SK건설(주) 현장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장에서 일하며 느끼는 고충과 극복법이 있나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제일 건디기 힘든 것은 혹서라고 해도 너무나도 가혹한 뜨거운 무더위 (50℃)와 앞을 분간기 어려운 모래 바람일 것이다. 아무리 더위도 얼굴을 햇빛이나 모래 바람에

노출 했다가는 바로 화상을 입고 장시간 작업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작업에 임해 준 해인 엔지니어링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roject Management)다. 사실 해인은 아직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또한 파워시스템사업본부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을 만들어갈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은?

(주)해인에서 그간 납품한 전세계 국가가 벌써 20여 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가장 어렵다는 Onshore와 Offshore의 팔목 할 만한 성장이 바로 SK건설(주)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되었다. SK건설(주) 프로젝트의 경우 해인이 수주한 가장 큰 Onshore 프로젝트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Offshore 프로젝트 역시 최근 DSME (대우조선해양)로부터의 연이은 사상 최대의 수주 기록을 눈 앞에 두고 있음을 자랑할 만 하겠다. 앞으로 파워시스템사업본부는 그간의 SK건설(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벌어질 유수한 프로젝트에 과감히 참여하여, 현재도 갱신 중인 사상 최대의 수주 기록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핸들링 역량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증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큰 프로젝트를 찾아 세계를 누빌 것이다.

To, *해인*

13일째 모래폭풍에 온 쿠웨이트가 휩싸여 있습니다

폭풍이 오는 날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7시 정도).

처음에는 더운데다 모래폭풍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습니다.

이제는 밤도 모래와 함께 있어야 밤맛이 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모래를 씹으면서 담배를 피야 개운하냐?

기온은 아침기온이 33~35도 정도, 낮 기온은 45~48도 사이입니다.

지난 6월 초에는 50도를 2~3 일 동안 기록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3시에 기상해서 4시까지 현장에 출근 합니다.

퇴근은 오후 3시~4시 사이에 합니다. 저녁 9시 이전에 다 잠자리에 듭니다. <중략...>

From *곽운수*

From First Cut To Finish Grade!

‘소형 불도우저’의 새로운 정의! 캐터필러 D3K/D3K/D5K/D6K!



※상기 사양은 실제 사양과 다를 수 있음



- 새로운 인체공학적 설계 조이스틱
- 왼쪽 Thumb Wheel
→ 최대 주행속도 조절
- 오른쪽 Thumb Wheel
→ 블레이드 각도 조절



-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 디스플레이터 페달
→ 속도제동동시 제어



- CAT C4.4 ACERT 엔진
→ EPA Tier 3 적합 엔진
- 4dB 소음 감소
- 정격출력 : 74hp
→ D3G 대비 6% 증가



- 원심형 프리크리너 장착
- 후드 하단 설치
→ 전방 시계성 개선 효과
- 필터 교체주기 50% 감소
→ D3G 경우 20% 감소

● 제원 비교표

		단위	D3G LGP	D3K LGP	비고
엔진	운전중량	kg	8,171	8,496	325
	모 델		CAT 3046T	CAT C4.4	
	보어 X 스트로크	mm	94 X 120	105 X 127	
성능	정격출력 (NET)	hp	70	74	4
		rpm	2,400	1,900	- 500
	변속기 종류	-	Hydrostatic	Hydrostatic	
하체	주행 속도 (km/hr)	전진 최고	9	9	0
		후진 최고	9.6	10.0	0.40
			6	6	0
하체	하부 롤러		1	1	0
	상부 롤러		1	1	0
	슈 판 (SALT)	각축	39	41	2
	슈 판 (System one)	각축	35	36	1
	슈 폭	mm	635	635	0
	트랙 접지 길이	mm	2,055	2,095	40
	트랙 게이지	mm	1,676	1,725	49
제원	전 장	mm	4,017	4,255	238
	전 폭	mm	3,146	3,149	3
	전 고 (Cab)	mm	2,765	2,763	- 2
	블레이드 폭	mm	3,146	3,149	3
	블레이드 높이	mm	843	860	17
	블레이드 용량	m³	1.53	1.66	0.13
	Pitch 각	도	50 ~ 55 도	52 ~ 58 도	
	최저지상고	mm	374	332	- 42
	연료탱크 용량	ℓ	165	195.0	30
	엔진오일 용량	ℓ	13	11.0	- 2
	파이널 드라이브 (각축)	ℓ	13.8	10.0	- 4
	냉각수 용량	ℓ	21	22.4	1
	변속기 / 유압오일 용량	ℓ	46.5	59.5	13

■ 시스템 원 (System one)



- 하체 운용비용 최대 50% 이상 절감
- 부상타닝이 필요 없음
- 아이들러 디자인 혁신을 통한 링크 마모 감소

■ 리퍼



(주)혜인 기술자료 소개

오일의 혼용성

어느 두 가지 다른 오일의 혼용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오일이 서로 혼합되었을 때 이물질의 생성, 유화 및 변색 등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 혼합물이 원래의 두 오일 모두에 비하여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낼 경우를 이야기 한다.

오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종류마다 서로 다른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같은 오일이라 하더라도 각 제조 회사별로 다른 화학구조를 갖는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어느 두 오일의 혼용성은 직접 시험해 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계의 경험, 연구 및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① 일반적으로 고급 오일인 경우,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고안되고, 제조된 제품끼리는 거의 혼용성이 있으나 보다 확실한 것은 각 오일 제조 회사에 문의토록 한다.

② 같은 미군 규격(U. S. Military Specification)의 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끼리는 서로 혼합사용이 가능하다.

③ 염기성 오일 및 산성 오일은 물이 존재하는 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물의 존재로 인하여 가수분해가 일어나, 비누형 (알칼리 금속염침전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오일은 대체로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염기성 및 산성으로 구분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래의 두 가지 형의 오일을 서

로 혼합하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 온도가 높아지면 점차로 이물질이 생성되기도 한다.

〈표〉 산성 오일 및 염기성 오일의 일반적인 구분

산성 오일	염기성 오일
터빈 오일	육상용 엔진 오일
실린더 오일	해상용 엔진 오일
유압 오일	자동차 엔진 오일
압축기 오일	토크 컨버터 오일
기어 오일	
절삭유	

※ 위의 구분은 오일 제조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오일의 사용 시 서로 다른 성질의 오일로 바꾸어 써야 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염기성 오일을 산성 오일로 바꿀 때
첨가제가 없는 순 광유를 사용하여 계통 내를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염기성 칼슘을 10ppm 이하로 만들 것) 이는 소

량의 염기성 물질이라도 전체적으로 유화 현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② 산성 오일을 염기성 오일로

바꿀 때
철저한 세척까지는 필요 없으나 이전에 사용하던 산성 오일을 할 수 있는 한 깨끗이 빼내야 한다. 이는 비록 소량의 이물질이 생성된다고 해도 염기성 오일이 갖는 청정 분산성에 의해 그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오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소량의 물이라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미래를 내다보는 고유가 정책 필요

경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미 경유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 접어들어 건설기계사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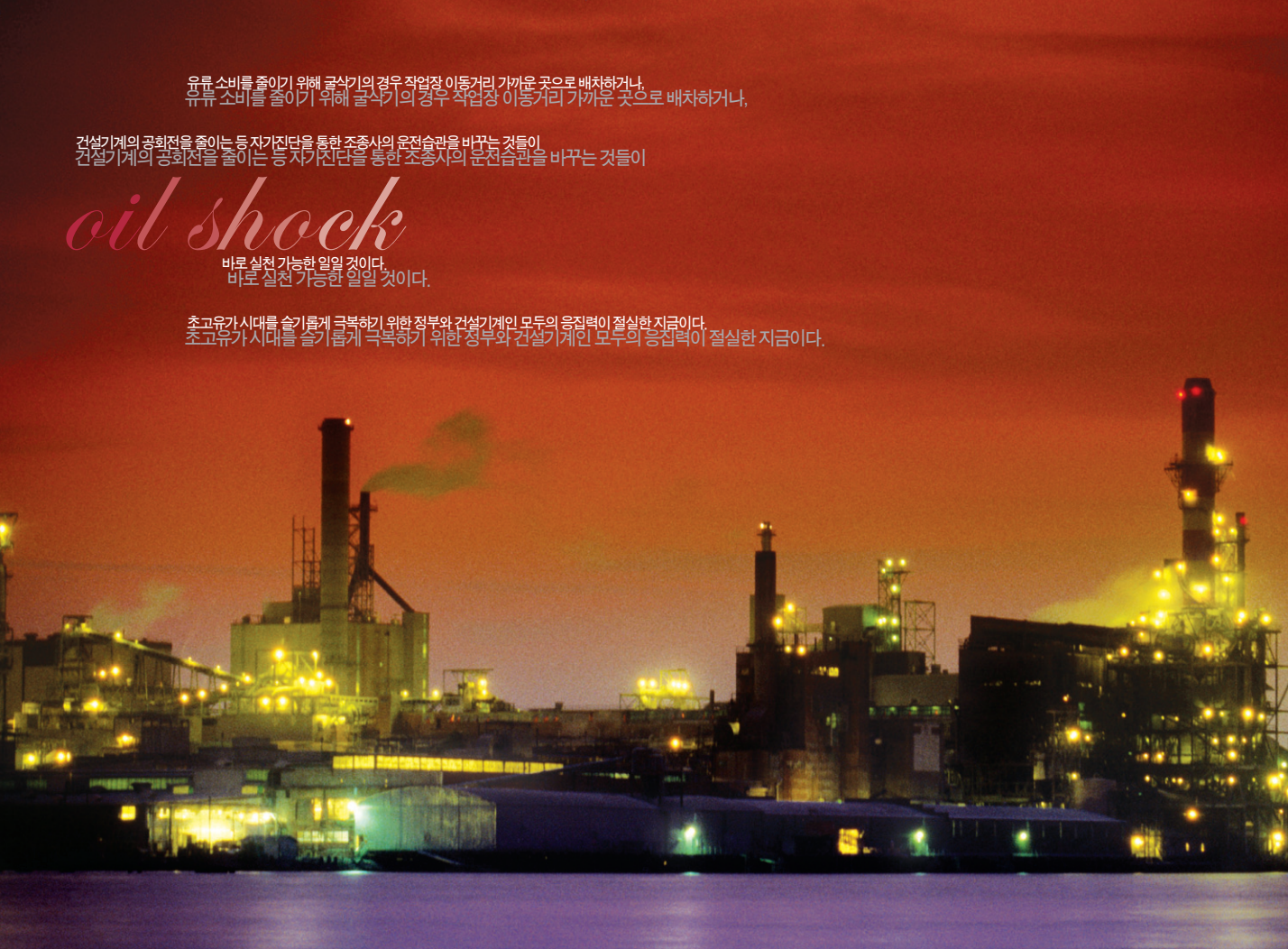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굴삭기의 경우 작업장 이동거리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거나,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굴삭기의 경우 작업장 이동거리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거나,

건설기계의 공회전을 줄이는 등 자가진단을 통한 조종사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건설기계의 공회전을 줄이는 등 자가진단을 통한 조종사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oil shock

바로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바로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다.

초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건설기계인 모두의 응집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초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건설기계인 모두의 응집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고유가, 보다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경유 세율을 휘발유 세율 대비 85%까지 인상하면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교통세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8941호, 2005.7.8)를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회계통첩시달(회계제도과-1525호, 2005.7.22)과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통보(건설지원담당관실-2058호, 2005.8.1)를 근거로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기계사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업계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받기위한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정부의 고유가 관련 대책 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이 찌꺼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부분 기존 제도를 좀 더 연장하거나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좀 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생 핵심인 경유 대책은 빠져있고 에너지 바우처도 구체적 범위와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말해 재탕에 알맹이도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고유가로 압박받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일회성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효과를 노린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하반기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희망적인 각종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전망이 빗나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정부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대책을 등 떠밀려 내놓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대책은 우선 생계형 경유 소비자들이 휘발유값의 85% 정도로 경유를 쓸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물류, 운송, 생계형 자영업자 등과 화물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지입차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실질적 대처방안 만들어야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유세율의 인하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유가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초고유가 시대에 처한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건설기계사업자들 스스로도 '오일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굴삭기의 경우 작업장 이동거리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거나, 건설기계의 공회전을 줄이는 등 자가진단을 통한 조종사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바로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다. 초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건설기계인 모두의 응집력이 절실한 지금이다.

고유가 문제는 단기적인 사안이 될 수 없다. 석유자원의 고갈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며 최근의 고유가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추세적인 상승세를 단지 미봉책으로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원유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캐터필라 휠 굴삭기 M313D

가격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고가의 장비가 판매량으로 1,2위를 다툰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이미 고객의 호평을 받은 캐터필라 휠 굴삭기가 지금 한국 고객에게 다가오고 있다.



CAT은 달라야 한다. 프리미엄 장비를 소유한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처음타는 순간 “와- 역시캐터필라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K씨. 사실, 캐터필라 휠 굴삭기인 M313D는 지난해 CONEX 및 ㈜헤인 자체의 대규모 전시회였던 Solution Fair에서 이미 선을 보였으며, 많은 고객들이 시승해보고, 평가하였다.

CAT은 확실히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 그러나 왜 다른 것인지, 단순히 보이기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CAT의 100년 중장비 공학으로 짚어본다.

1. VA 붐 (쓰리붐 타입)



VA붐은 붐과 스틱, 버킷의 무게중심을 차체 안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주행 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행 시 우측시야를 놀랄 만큼 개선

한다. 또한 06급 휠 굴삭기의 작업 용도가 다양한 만큼, VA붐을 통해 작업 거리를 멀거나 가깝게 또는 높게, 깊게... 필요한 대로 매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터 파기, 평탄작업, 고공

작업, 비좁은 도심지역의 작업 등 VA붐은 어떤 작업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2. 사이드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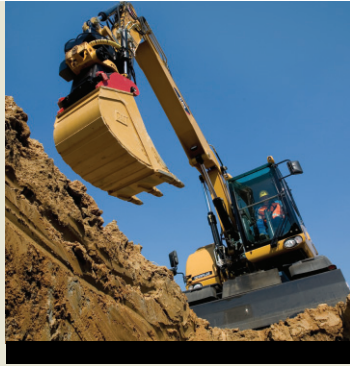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 측면에 배치된 엔진. 후방 시야를 좋게 하는 것은 물론, 엔진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을 지면 높이에서 매우 쉽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매일 수행하는 일일 점검은 장비수명과 직결되는 만큼, 필수적으로 수행되도록 고려하는 것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장비 사용자를 고려한 섬세한 설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내의 유명 제작사에서 측면에 엔진을 장착하였으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발생 하여 해당 모델이 퇴출된 경험이었다. 이 때문에 사이드 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캐터필라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계산하지 못했다면, 이미 유럽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3. 라이드 컨트롤

주행 시 붐이 출렁이는 것을 잡아주는 라이드 컨트롤은 주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휠 굴삭기에 필수적인 사양이다. 라이드 컨트롤은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고, 버킷에 담은 물질의 손실을 방지하며, 빠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4. 휠 간격

휠 굴삭기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동성이다. 그게 아니라면 크롤러 굴삭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캐터필라는 휠베이스를 짧게 설계하였다. 길면 길수록 조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크롤러식 굴삭기의 하부를 토대로 휠 굴삭기를 만든 경쟁사와 캐터필라가 출발부터 다른 부분이다. 휠 굴삭기만을 위한 설계로 탄생한 M313D는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며, 휠 간격이 짧아서 느낄 수 있는 불안전성은 VA붐으로 완벽하게 해소된다.



고객의 마지막 장비, 똑똑한 장비여야

캐터필라 휠 굴삭기의 특징은 CAT장비 전통의 파워와 내구성뿐만이 아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한 섬세한 설계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드 컨트롤이나 스노버와 같은 진동 감소를 위한 완충기술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의 변속 레버를 페달로 바꾸고, 와이퍼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심지어 엔진의 위치까지도 측면으로 고려하였다. 장비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첨단 모니터 시스템은 후방 카메라와 연결하여 별도의 카메라용 모니터 없이도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M313D는 대부분의 엔진 정비작업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정비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회전식으로 열리는 에어컨 콘덴서, 힌지로 연결된 쿨러, 원격 그리스 주입 시스템 등을 통해 운전자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힘들게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 M313D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특징은 ACERT엔진으로 실현된 연료효율성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완전연소시스템인 ACERT엔진은 배출가스를 재 흡입하는 타사의 EGR시스템과 달리 최상의 연소상황을 구현하여 필요한 만큼만 연료를 소모하도록 한다.

캐터필라의 연료절감을 위한 장비설계는 엔진뿐만 아니라, 공회전시 RPM을 자동으로 낮춰주는 원터치 공회전 컨트롤 시스템, 필요에 따라 자동 구동하는 냉각 팬, RPM 모드설정 기능 등과 함께 더욱 확실하게 연료소모량을 줄여준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매일 아침 고객의 이름을 읽어보며 영업사원의 마인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는 초짜 영업사원입니다.

초짜라 그런지 때로는 영업사원임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자극하고 다시 강하게 만들 '한 마디'

없을까요?



자부심, 스스로에 동기부여

1928년 GE의 호손 공장(Hawthorne Electric Plant)에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던 어떤 전문가 그룹은 작업장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일련의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터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한 조의 여성 근로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량품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적의 근무 조건을 발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근로자들은 실험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던 것이죠. 연구자들은 작업장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3일 이내에 생산량은 증가하고 불량품은 감소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후 연구자들은 차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조명의 밝기를 낮추었지만 놀랍게도 생산량이 또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건을 바꾸어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소음 정도나 작업실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기도 했고, 근로자들의 좌석 배열과 작업 순서를 바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침내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불러모아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근무 조건 중 어떤 것을 변화시켜도 생산량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자신들의 존재를 단순한 공장 근로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험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자 자존심과 자부심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더 나아졌다고 느꼈고 스스로를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업무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해냈던 것입니다. 자부심은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고’라는 한 마디가 필요

고졸출신 엔지니어로 애플사 창업, 최초로 퍼스널컴퓨터 개발, 마우스 작동방식 최초 개발, 스티브 잡스를 따라다니는 수석어류이다. IBM이 빌게이츠와 손잡고 PC 운영체제를 만들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환성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잡스와 같은 자부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잡스는 그 반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혹 객관적으로는 제품에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최고야”라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바로 업무를 보다 훌륭하게 수행해 내도록 하는 훌륭한 원동력입니다. 스스로가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성공을 향한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혜인 들여다보기 *NEWS

30
31

신 경영 체제 출범



2008년 7월 1일, 본사 6시그마홀에서 ㈜혜인 회장 및 사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지난 25년간 ㈜혜인의 사장 및 회장직을 맡아오신 손규식 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 차후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임 집행부에 Advise 및 Consulting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Vision 2015 및 2020의 성공적 달성' 및 'Number One Player'의 가치아래 신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신 경영체제에서의 신임 회장으로는 전 원경희 사장, 신임 사장으로는 전 경영지원본부 원중희 부사장과 장비사업본부 이성태 전무가 각각 일임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별관 철거작업 중인 345CL UHD

지난 3월 ㈜혜인에서 건물 철거 전문 업체인 성도건설산업주에 납품하여 명동의 구 중국대사관 철거 작업을 성공리에 마친 캐터필러 345CL UHD 장비가 지난 6월 25일부터 서울 시청 철거 작업에 투입되었다.

역사적인 시청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장비는 345 HEX base machine에 UHD Front 를 개발/적용한 초고층 건물 철거전용 장비로써 지금까지 철거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작업 공구보다 향상된 안전성, 내구성 및 운전자 편안함을 중점으로 개발하여 건물 및 구조물 해체 철거 작업 전 공정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서울시는 1926년 일제 때 경성부 청사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22층의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주혜인6 SIGMA - Best Green Belt Reward Program 실시(당신이 있어 혜인이 있습니다)



혜인 6 Sigma 팀에서는 지난 6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Best Green Belt Reward Program' 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6 시그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Green Belt중에서 가장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한 Green Belt 1인을 선정하여 가족 동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명의 Green Belt가 선정되었으며 청풍유원지에서 진행이 되었다.

더운 기온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참가한 GB에게는 "당신이 있어 혜인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이름이 새겨진 와인 병이 기념품으로 증정되었으며, 우리 직원들의 숨은 맘과 노력이 있기에 혜인이 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7대 노동조합위원장 당선



지난 3월 29일 노동조합 제19년 차 정기총회에서 제7대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노재범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노재범 위원장은 1대 대의원, 2대 집행간부, 3대 위원장,

4대 고문, 5대 고문, 6대 선거관리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회사의 이윤창출과 더불어 노사 화합 속에 조합원의 복지정책과 조합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위원장 : 노재범 / 부위원장 : 김혁수

*사무장 : 조성배

*집행간부 : 백승삼, 박상훈, 김준철, 김동현, 현영규, 이용진, 박영범 / 대의원 : 박용기, 정재열, 전순규, 박찬표, 노주일, 강유석, 홍성규, 박지수 / 회계감사 : 조정호, 이재유

주혜인 직원 영어 교육 실시



주혜인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영어 역량 개발 및 World-Class Leader를 양성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비즈니스 영어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Needs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비즈니스 영어 Speaking Skills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